



“한국 장로교, 잘 부탁 합니다” 제28대 증경대표회장 양병희 목사(왼쪽)가 제35대 대표회장 유중현 목사에게 대표회장 취임패를 증정하고 있다. ©박용국 기자

한장총 제35대 유중 현 대표회장 취임감사 예배

(사)한국장로교총연합회(이하 한장총)
제35대 대표회장 유중현 목사(성현교회)
취임감사예배가 15일 낮 예장대신 총회회관에서 있었다.

유중현 목사는 취임사를 통해 “1년의 짧은 임기지만, 임원과 상임위원장, 특별 위원장들과 함께 힘으로 함께 한국교회와 세계교회 앞에 장로교회가 살아 있음을 알리겠다”고 말하고, “한장총의 정체성과 위상을 위해 열심히 일하겠다”고 다짐했다.

이어 유 목사는 한 회기 사업 구상에 대해 소개하고, “아무리 선하고 좋은 일이라도 혼자는 못한다. 하나님께서 먼저 도우셔야 하고, 뒤에는 임원과 상임위, 특별위원들이 함께 하며 계획한 일들을 주 전해야 한다”면서 “각 교단과 총대 분들도 기도로 동참해 달라”고 했다.

유 목사는 “한국교회가 힘들다고 하는데, 영성을 상실해서 그렇다”고 지적하고, “성령 충만하고 영성을 회복한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며 “영성회복에 한장총이 앞장서겠다”고 했다. 더불어 “어렵고 힘들 수록 하나님 되어야 한다”면서 “한장총이 한국교회 하나 되는 일에 앞장서겠다”고 이야기 했다.

먼저 드려진 1부 예배는 전계현 목사(예장합동 총회장, 공동회장)의 인도로 열렸으며, 장종현 목사(백석학원 설립자)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영적 지도자”(수1:5-9)란 제목으로 설교했다.

장종현 목사는 “종교개혁 500주년, 한국 장로교회는 분열의 죄를 회개하고 거룩성 회복과 하나님 됨에 힘써야 한다”고 말하고, 유중현 목사에게는 ▶영적 지도자로서 강하고 담대하라 ▶말씀에 순종하라

▶영적으로 충만하라고 당부했다. 장 목사는 한장총을 통해 제2의 종교개혁이 일어나기를 바라며 설교를 마무리 했다.

송태섭 목사(상임회장)의 사회로 열린 2부 취임예식에서는 양병희 목사(제28대 증경대표회장)와 유만석 목사(제31대 증경대표회장), 유충국 목사(예장대신 총회장, 공동회장)가 축사하고 박근목사(한국기독교연합 증경대표회장)와 이동석 목사(한국기독교연합 대표회장)가 격려사를 전했다.

한편 유중현 목사는 백석신학교와 서울장로회 신학대학교, 총신대 신대원과 목회대학원,

백석대학원, 연대 연신원, 미국 Faith Theological 대학원(명신학원) 등을 나왔다. 예장대신 한남중앙노회장과 총회 부흥사회 대표회장, 총회 총회장 등을 역임했으며, 다양한 교계 단체장으로 한국교회를 섬겨 왔다.

박용국 기자

한기연 1차 임원회 개최… 임원 상임 특별위원장 조직

한국기독교연합(대표회장 이동석 목사)
제7-1차 임원회가 지난 14일 오후 1시 강원도 대관령 고령성결교회에서 열려 제7회기 임원과 상임위원장, 특별위원장 임명 등 제7회 총회 미진안관과 수임안건을 처리했다.

대표회장 이동석 목사는 개회예배에서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창1:1-7)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한기연의 모든 임원들이 한 회기동안 주님 앞에 구별됨으로 하나님 보시기에 참 좋았더라 하는 칭찬받는 한 기인이 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어 경실련은 “종교인 세무조사를 배

제하는 소득세법시행령 제222조(질문·조사) 제2항, 제3항의 신설조항에 반대한다”고 했다. 이들은 “종교인 과세가 시작되면, 당연히 종교인들도 세무조사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고 밝히고,

“해당 조항은 실질적으로 종교인들에 대한 세무조사가 불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데, 종교인 세무조사도 사실상 불가능한 것은 국민개세주의의 관점에서 조세정의 실현에 배치되는 것”이라 주장했다.

경실련은 먼저 “조세형평성 확손과 과세행정 논란을 가져올 종교 활동비 비과세를 반대 한다”고 했다. 정부의 개정안 소득세법시행령 제19조(비과세되는 종교인 소득의 범위) 제2항 제3호에는 ‘종교활동에 사용할 목적으로 지급받은 금액 및 물품을 비과세 종교인 소득 범위에 추가하고 있다. 이에 대해 경실련은 “이 문구는 사실상 그 범위를 특정하기 어려워 종교인 소득 전체에 대한 비과세로 약용될 우려가 크고, 실제 종교단체가 종교관련 종사자에게 지급하는 금액 상당부분을 위 문구에 해당하는 명목으로 지급하고 있어 사실상 과세가 되지 않는 문제가 발생 한다”고 주장했다.

또 이들 단체는 ▶만일 시행령 개정안에 담은 위 두 가지 원칙을 훼손하거나, 헌법에 명시된 종교의 자유와 정교분리의 원칙을 위반하여 종교의 존엄성에 상처주거나 모범을 위반한 시행령 개정이 자행된다면 위헌심사의 대상이 됨은 물론이고

심각한 정교갈등과 함께 강력한 조세저

작을 것을 기대한다”고 밝히고, “북한도 이 제안을 적극적으로 수용하여 평화와 상생의 길을 열어가길 희망한다”며 “아울러 본회는 남북 간 대화도 조속히 실시하여 단절된 관계를 회복하고, 남북의 화해와 평화, 민족 자주통일의 길로 나아가길 간절히 바란다”고 이야기 했다.

한편 렉스 텔러슨 미국 국무부 장관은 지난 12일(현지시간) 북한 해·미사일 도발 위기와 관련 “우리는 전제조건 없이 기꺼이 북한과 첫 만남을 하겠다”고 말했던 바 있다.

이는 북한의 비핵화 의지 확인 또는 핵·미사일 도발 중단 등 북·미 대화를 위해 기존에 내걸었던 조건을 일단 접어두고 협상 착수를 위한 무조건적 회동에 나설 수 있다는 파격적인 내용의 제안으로 평가 받고 있다.

박용국 기자

총리의 ‘종교인 과세’ 보완 요청에 교계 “뒤통수 맞은 느낌”

12일 국무회의 발언에 14일 교계 반발 성명

지난 12일 이낙연 국무총리가 국무회의를 통해 종교인 과세와 관련, “종교에 의견을 존중하되 일반의 눈높이도 감안해 조세행정 행정성과 투명성에 관해 좀 더 고려해 최소한의 보완을 해 달라”고 요청하자 교계가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한국기독교총연합회(한기총)와 한국기독교연합(한기연), 한국장로교총연합회(한장총), 전국17개광역시도기독교연합회 등은 명의로 14일 발표된 성명서에 따르면, 이들은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12월 14일까지의 예고기간 동안 종교계를 비롯해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 중에, 국무총리가 직접 나서 지난 12일 국무회의에서 기획재정부에 재검토 지시를 내려 종교계는 당혹스럽고 뒤통수를 맞은 느낌”이라 전했다.

이들 단체는 이낙연 총리의 지시에 대해 “그동안 정부와 종교계가 수없이 만나 소통하며, 국회의 조정 역할을 거쳐 어렵게 도달한 안을 종교계와 사전 협의도 없이 휴지조각으로 만들려고 하는 행위이며, 지난 6일 대통령의 조정으로 7대 종교 지도자들이 청와대 오찬을 다녀오며 건전한 협력을 다짐하는 분위기에 한 물을 끼얹고 어깃장을 놓는 몽니”라 주장했다.

이어 이들 단체는 “그동안 기독교계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우려하여 2년간 시행을 유보하고 충분히 보완하여 시행할 것을 요청해 왔지만 정부가 이를 일축하고 내년 1월 1일 시행을 정해 놓고 종교계와 협의를 진행해 왔던 것”이라 설명하고, “그런데 이제 와서 기재부는 물론 국회와의 조정을 거치고, 각 종교계와의 의견 수렴으로 만든 개정안까지 종교의 말한마디로 원점으로 돌린다면 정부를 불신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 했다.

그렇다면 이낙연 총리는 “일반의 눈높이은 어떤 것일까. 경제정의 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지난 13일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종교인 과세) 입법예고에 대한 경실련의 의견서를 기재부에 제출했다. 경실련은 의견서를 통해 “그 내용은 취지가 대폭 축소되어 무력화된 허울뿐인 종교인 과세안”이라 비판하고, “종교인 과세는 상식”이라며 “시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수준의 최소한의 실질적인 종교인 과세가 시행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실련은 먼저 “조세형평성 확손과 과세행정 논란을 가져올 종교 활동비 비과세를 반대 한다”고 했다. 정부의 개정안

소득세법시행령 제19조(비과세되는 종교인 소득의 범위) 제2항 제3호에는 ‘종교활동에 사용할 목적으로 지급받은 금액 및 물품을 비과세 종교인 소득 범위에 추가하고 있다. 이에 대해 경실련은 “이 문구는 사실상 그 범위를 특정하기 어려워 종교인 소득 전체에 대한 비과세로 약용될 우려가 크고, 실제 종교단체가 종교관련

종사자에게 지급하는 금액 상당부분을 위 문구에 해당하는 명목으로 지급하고 있어 사실상 과세가 되지 않는 문제가 발생 한다”고 주장했다.

또 이들 단체는 ▶만일 시행령 개정안에 담은 위 두 가지 원칙을 훼손하거나, 헌법에 명시된 종교의 자유와 정교분리의 원칙을 위반하여 종교의 존엄성에 상처주거나 모범을 위반한 시행령 개정이 자행된다면 위헌심사의 대상이 됨은 물론이고

심각한 정교갈등과 함께 강력한 조세저

작을 것을 기대한다”고 밝히고, “북한도 이 제안을 적극적으로 수용하여 평화와 상생의 길을 열어가길 희망한다”며 “아울러 본회는 남북 간 대화도 조속히 실시하여 단절된 관계를 회복하고, 남북의 화해와 평화, 민족 자주통일의 길로 나아가길 간절히 바란다”고 이야기 했다.

한편 렉스 텔러슨 미국 국무부 장관은 지난 12일(현지시간) 북한 해·미사일 도발 위기와 관련 “우리는 전제조건 없이 기꺼이 북한과 첫 만남을 하겠다”고 말했던 바 있다.

이는 북한의 비핵화 의지 확인 또는 핵·미사일 도발 중단 등 북·미 대화를 위해 기존에 내걸었던 조건을 일단 접어두고 협상 착수를 위한 무조건적 회동에 나설 수 있다는 파격적인 내용의 제안으로 평가 받고 있다.

박용국 기자

NCCK “美국무장관, 北과 조건 없는 대화’ 환영”



한국기독교 교회협의회총무 이홍정 목사, NCCCK 회해·통일위원회 위원장 나핵진 목사, 이하 화통위가 최근 렉스 텔러슨 미국 국무장관이 북한에 ‘조건 없는 대화’를 제

줄 것을 기대한다”고 밝히고, “북한도 이 제안을 적극적으로 수용하여 평화와 상생의 길을 열어가길 희망한다”며 “아울러 본회는 남북 간 대화도 조속히 실시하여 단절된 관계를 회복하고, 남북의 화해와 평화, 민족 자주통일의 길로 나아가길 간절히 바란다”고 이야기 했다.

한편 렉스 텔러슨 미국 국무부 장관은 지난 12일(현지시간) 북한 해·미사일 도발 위기와 관련 “우리는 전제조건 없이 기꺼이 북한과 첫 만남을 하겠다”고 말했던 바 있다.

이는 북한의 비핵화 의지 확인 또는 핵·미사일 도발 중단 등 북·미 대화를 위해 기존에 내걸었던 조건을 일단 접어두고 협상 착수를 위한 무조건적 회동에 나설 수 있다는 파격적인 내용의 제안으로 평가 받고 있다.

박용국 기자

아시아·태평양 지역 기독교 방송사 한 자리에

2017 ASIAN-PACIFIC CHRISTIAN BROADCASTERS SUMMIT

아시아-태평양 지역 기독교 방송사 대표들이 ‘기독교 방송 미디어의 선교 사명’을 공유하고, 협력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한국에 모였다. 12월 14일부터 16일까지 3박 3일간의 일정으로 진행되는 ‘2017 ASIAN-PACIFIC CHRISTIAN BROADCASTERS SUMMIT’에 참가하기 위해서다.

크게 헌신하고 있는 분들이 모인 데 대해 국회에서도 큰 관심을 가지고 있다”며 “시작은 미약하나 끝은 창대하리라” 하신 말씀처럼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 복음을 널리 알릴 수 있는 사역이 크게 발전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또 “국회에서 방송 관련 일을 하고 있는 만큼 한국의 CTS 사역에 큰 관심을 가지고 열심히 일하겠다”고 밝혔다.

CTS기독교TV의 주최로 열린 ‘2017 ASIAN-PACIFIC CHRISTIAN BROADCASTERS SUMMIT’(이하 ‘ACBS’)에는 인도네시아 LIGHT MEDIA 의 웨슬리 파라팟 회장, 대만 GOOD TV 의 슈 원 예 부사장을 비롯해 대만의 Overseas Radio & TV Inc(ORTV), 인도네시아 PIJAR TV, 파키스탄의 Issac TV, 말레이시아 CBN SEA & Korea, 홍콩 Creation TV 등의 기독교 방송사 대표들이 참가했다.

3일간의 일정은 개회예배로 시작됐다. 설교를 전한 할렐루야교회 김상복 원로 목사는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하라는 예수님의 말씀이 20세기 이후 라디오, 텔레비전과 같은 미디어를 통해서 성취되고 있으며, 기독교 미디어 사역자들이 그것을 가능케 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다른 환경에서 왔지만 하나님의 한 몸이자 한 명령을 받은 미디어 사역자들을 통해 하나님의 명령이 완성되길 소망한다”고 강조했다.

개회식에는 기독교계 안팎의 인사들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신상진 국회의원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은 “아시아 태평양 지역 미디어 사역에



2017 ACBS에 참가한 아시아 태평양 기독교방송사 대표들 기념촬영 CTS 제공

위한 심도 깊은 논의들이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다음 세대’, ‘뉴미디어 전략’과 같이 모든 미디어가 동시에 직면하고 있는 사회적 변화에 대한 대응책을 찾기 위한 주제와 함께, ‘지역 교회와의 네트워킹’, ‘콘텐츠 제작’처럼 보다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주제들이 다뤄질 예정이다. 주제 (JSA)을 비롯해 도라전망대, 제3땅굴 일대를 둘러보고 남북한의 분단 현실을 이해하는 시간을 가질 예정이다. 이어 마지막 일정으로는 CTS 주최로 16일 서울 고척스카이돔에서 열리는 ‘2017 월드기네스 오케스트라 합동연주회’를 관람할 예정이다.

이번 행사를 주최하고 있는 CTS기독교TV의 김경철 회장은 “‘2017 ACBS’는 다양한 역사적 배경과 정치·경제·사회·환경 속에서 ‘기독교 미디어’라는 공통분모를 가진 아시아-태평양 지역 사역자들이 공식적으로 함께 모이는 첫 자리”라고

agreement)에に基づ 예정이나. MOA 체결을 계기로 아시아-태평양 지역 기독교 방송사들은 콘텐츠 교류와 공동제작, 기독교 콘텐츠 어워즈, 미디어 선교를 위한 사업 등에 공동의 노력을 기울인다는 계획이다.

특별히 행사의 마지막 날에는 역사상

이 풍자적으로 쉽게 보이는 것 차리라고 역사적인 가치를 강조했다. 또 “아시아-태평양 지역 기독교 방송사 간 교류와 파트너십 강화,

미래 미디어 전략 모색을 통해 미디어를 통한 다음세대 살리기, 대사회적 기여 등에 실질적인 역할을 맡아가길 기대하-

특별히 행사의 마지막 날에는 역사상 최초로 아-태 지역 기독교 박속사 관계 등에 질질적인 열매를 맺어가길 기대한다”고 최지를 설명했다.

최초로, 아-태 지역 기독교 방송사 관계자들이 공동으로 판문점 공동경비구역 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이나래 기자**

한기연, 다문화가족 초청... 평창 동계올림픽 시설 참관

한국기독교연합(대표회장 이동석 목사, 이하 한기연)은 지난 14일 다문화가족 100여 명을 초청해 동계올림픽 개폐회식이 열리는 평창 주경기장과 스키점프 경기장, 강릉 동계올림픽 흥보체험관 등 주요 시설을 돌아보고 동계올림픽 D-57일이 남은 기간에 올림픽 성공개최를 위해 국민적인 참여운동을 전개해 나가기로 했다.

기초화장품세트, 한과선물 세트 등 푸짐한 선물을 전달하며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했다.

대표회장 이동석 목사는 인사말을 통해 “평창 동계올림픽은 대한민국 국민 모두의 잔치일 뿐 아니라 전 세계 지구촌 가족의 축제”라며 “한기연이 다문화가족 여러분을 특별히 초청하게 된 것은 우리가 비록 얼굴색과 국적이 달라도 주님 안

한기연은 이날 대표회장 이동석 목사를 비롯한 회원교단 총회장 등 임원, 상임위원회 위원장과 직원 등 20여명과 안산 다문화센터에 속한 중국 몽골 필리핀 등 다문화 가 미국 말씀과 복음만 들라도 구름 만에서 한 형제와 자매이기 때문에 올림픽을 앞두고 주님의 사랑을 나누기 위함”이라고 말했다.

이 대표회장은 특히 “아기 예수님의 이

가족 100여명을 초청해 버스 3대로 서울과 안산에서 각각 출발해 동계올림픽 주 경기장과 주요시설이 있는 평창 알펜시아 리조트 내 개폐회식 스타디움, 스키점프 경기장 등을 돌아봤다.

이어 평창 황태마을에서 황태구이와 황태국으로 점심식사를 한 후 대관령 고령성결교회에서 개회예배를 드리고, 대한민국에서 열리는 동계올림픽 시설을 미리 참관해 본 느낌을 서로 나눈는 시간을 가졌으며, 이 자리에서 한교연은 참가한 다문화가족 모두에게 동계올림픽 조직위 공인 올림픽 기념 텔록도리와 여성용

이번 행사에서 다문화가족들은 동계올림픽 조직위 파견 직원으로부터 상세한 설명과 함께 흥보체험관을 방문하는 등 올림픽 시설 참관 뿐 아니라 어린이를 동반한 가족을 위해 강릉 서로 아쿠아리움과 한과마을에서 한과를 만드는 체험을 통해 대한민국의 문화를 체험하기도 했다.

A group of approximately 30 people, mostly children and young adults, are standing in a row on a snowy slope. They are all wearing matching red jackets with white stripes on the sleeves. In front of them, a long blue banner is held horizontally. The banner has white Korean text on it. In the background, there is a large, modern-looking stadium with a distinctive white, sail-like roof and a tall, curved support structure. The ground is covered in snow.

가수 박남정, 장기부전 환우 위해 재능기부

(재)사랑의장기증운동본부(이하 본부, 이사장 박진탁)는 지난 11월 13일 월요일 한남동의 스튜디오에서 가수 박남정 씨의 '선한이웃' 표지화보 촬영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박남정 씨는 2013년 운전 면허시험장을 통해 장기기증 희망등록을 하며 본부와의 인연을 맺게 되었고 '선한이웃' 소식지의 표지모델 재능기부를하게 되었다. 박남정 씨는 "10여 년 전, 어

며니께서 사후 장기기증 등록에 동참하셨다는 것을 들은 이후부터 장기기증에 대해 긍정적으로 생각하게 된 것 같다”라며 “운전면허시험장에 있는 장기기증 희망등록서를 보고 자연스럽게 작성하게 되었다”고 말하며 장기기증 희망등록에 참여하게 된 계기를 밝혔다. 또한 박남정 씨는 장기기증 희망등록과 함께 장기부 전 환우들을 위한 후원에도 참여하며 따

뜻한 나눔을 5년 째 이어가고 있다. 이번
촬영현장에선 스타를 꿈꾸는 두 딸에 대
한 사랑이 가득 묻어나는 이야기를 전달
하였다. 배우로 활동하고 있고 가수를 꿈
꾸는 두 딸에 대한 애정 넘치는 이야기로
촬영장을 훈훈하게 만들었다. 또한 다가
오는 2018년에 30주년 콘서트를 계획하고
있는 박남정 씨는 콘서트를 통해 팬들과
사랑의장기기증의 의미를 함께 나누고 싶

다는 뜻을 밝혔다.
박남정 씨가 화보 촬영한 '선한이웃'은
본부에서 발행하는 장기기증 홍보 소식지
로 장기기증이 필요한 환자들과 이식인,
유가족들의 감동적인 사연과 희망적인 메
시지를 담고 있다. 박남정 씨의 따뜻한
나눔이 묻어나는 화보와 인터뷰는 11,12
월 호 '선한이웃'에 공개된다.

이나래 기자

기독일보

www.christiandaily.co.kr

사장·발행인 김광수 일반판국장 장세규 교계판국장 김규진
136-075 서울특별시 성북구 안암로53 / 전화안내 02-739-8119 / 팩스 02-739-8120

대표메일 corp@cdaily.co.kr 광고 및 구독문의 070-4352-2480
기사제보 press@cdaily.co.kr 대표구좌 SC은행 130-20-571787
구독신청 우리은행 1005-301-884992
1년 180,000원 / 6개월 90,000원/ 1개월 15000원

미주 기독일보 www.christianitydaily.com
1990년 7월 19일 창간된 기독일보는 신문윤리 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합니다.

 월드비전

My KIDS

지구촌 어딘가에 있을 나와 꼭 닮은 아동을 찾아보세요!
그 아이의 꿈과 희망을 나의 손 끝으로 지켜줄 수 있습니다.

KIDS MY KIDS 참여인 참여방법!

① 검색창에 '월드비전 마이키즈'를 검색해주세요.

월드비전 마이키즈

② 모바일웹 mykids.wv.or.kr로 접속해보세요.

mykids.wv.or.kr

참여후원을 하시면

- 월드비전 Family Card와 함께 아동 친오가 된 카드를
받아볼 수 있습니다.
- 아동의 친오를 교육등록 신장을 보내거나 아동의 사연을
알려주어 아동의 변화의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한 1회 아동인재발굴 보고서를 받아볼 수 있습니다.

후원금을 통한 변화

- 월 30회의 후원금은 지역개발사업을 통해 아동의 건강,
보건, 학습, 교육 및 미용에 지원을 합니다.
- 아동후원은 한 아버지 배고픔을 낸이 등을 기우고
한 마음의 희망이 됩니다.

홈페이지 www.worldvision.or.kr | 후원 문의 및 신청 02-2070-7000

이런 권능을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마태복음 8장 28절~9장 8절)

노벨상 수상작가인 솔제니친이 쓴 '이반 데니소비치의 하루는' 구소련 시절에 시베리아의 강제노동수용소에 간힌 정치범들의 하루 일과를 소재로 한 소설입니다.

경향교회 석기현 목사



그 소설의 주인공으로 등장하는 슈호프는 다른 대부분의 죄수들과 마찬가지로 억울한 누명을 쓰고 10년의 협기를 살고 있었는데, 그나마 좋은 반장을 만나서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수용소의 생활이란 '굶어 죽고 얼어 죽고 병들어 죽는' 일이 다반사로 벌어지는, 그야말로 열악하기 짙어 없는 것인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서 24명의 죄수들로 구성된 한 작업반을 책임지는 반장의 존재란 아주 절대적이었습니다.

물론 반장도 같은 죄수이기는 하지만, 그의 능력에 따라서 다른 반보다 조금이라도 더 쉬운 작업에 배치될 수도 있고, 작업량 사정(查定)에 따라 차등 배급되는 뺨을 반 조각이라도 더 받아먹을 수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 까닭에 슈호프의 반장처럼 '유능한 반장'을 만나면 일단 목숨은 부지 할 수 있게 되었다고 안심해도 무방하지만, '무능한 반장'을 만나면 영락없이 '나무웃(관)을 입게 되기 마련이었습니다.

즉 그 강제노동수용소 안에서는 반장 한 사람의 능력이 그 반(班)에 속한 죄수들 전원의 생명과 직결된 것이나 마찬가지였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성자 하나님으로서 화육강세해 주신 우리 예수님야말로 이런 점에 있어서 정말 믿음직하기 짙어 없는 '권능의 주님'이심을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무능력한 죄인이며 '사망의 저주' 아래 속박된 자들을 '살려' 주시기 위해 당신의 전능을 동원해 주시는, 실로 고마운 구세주이신 것입니다.

이 시간 저는 오직 예수님만 죄인에게 베풀어 주시는 그 놀랍고 위대한 권능이 과연 어떻게 작동하고 있는지를 함께 살피고 보고자 합니다.

1. 예수님이의 권능은 인간사회에서 가

장 비천하게 취급받는 사람의 생명까지 마귀로부터 건져내 줍니다.

마태복음 8장 28절부터 34절에 "28 또 예수께서 건너편 가다라 지방에 가시매 귀신들린 자들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 그들은 몹시 사나워 아무도 그 길로 지나갈 수 없을 지경이더라 29이에 그들이 소리 질러 이르되 하나님의 아들이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때가 이르기 전에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여기 오셨나이까 하더니 30마침 멀리서 많은 뇌지 떼가 먹고 있는지라 31귀신들이 예수께 간구하여 이르되 만일 우리를 쫓아내시려면 뇌지 떼에 들여보내 주소서 하니 32그들에게 가라 하시니 귀신들이 나와서 뇌지에게로 들어가는지라 온 떼가 비탈로 내리달아 바다에 들어가서 물에서 몰사하거니 33치던 자들이 달아나 시내에 들어가 이 모든 일과 귀신들린 자의 일을 고하니 34은 시내가 예수를 만나려고 나서서 보고 그 지방에서 떠나시기 전에 '나이까'라고 떠나는 뒷이 아니라, 상대방에게 암도당한 상태에서 '왜 이 러십니까?'라고 그 좌절감과 공포심을 나타내는 관용적인 표현입니다.

이것은 그 뒤를 이어 나오는 "때가 이르기 전에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여기 오셨나이까"라고 떠나면서 하는 말과 연결해 볼 때 더욱 확실해집니다.

그처럼 마치 전능한 존재인 것처럼 제멋대로 사람의 영혼과 육신을 암도하고 주장하던 귀신이 예수님 앞에 서게 되자 즉시 움ضة싹싹도 못하는 무력한 존재로 전락되어 버렸던 것입니다.

데지를 부정한 동물로 여기고 전혀 먹지 않는 유대인이 데지를 키운다는 것은 엄두도 못 낼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하여튼 예수님께서 그 가다라 지방의 한 동네에 이르렀을 때 "귀신들린 자들"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같은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 보면 귀신들린 사람이 한 명만 나타나는데, 이것은 물 중에서 예수님과 대화를 나눈 사람만을 중심으로 기록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 귀신들은 두 사람을 자기 마음대로 조종하고 있었던 까닭에 그들의 행동은 "몹시 사나워 아무도 그 길로 지나갈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즉 그들은 그야말로 암도적인 귀신의 힘에 꽉 붙잡혀서 무슨 사람들은 삶이나 도습이란 전혀 없이 그저 "무덤 사이"를 돌아다니는 '무시무시한 미치광이'가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오시자 기상천외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 두 사람 속에서 그토록 무적의 권력자처럼 횡포를 부리던 귀신이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당장 "하나님의 아들이여"라고 아예 첫 대면에서부터 두 손 번쩍 들고 나왔던 것입니다.

이것은 귀신이 악령이기는 하지만 적어도 예수님의 본성에 대해서는 오히려 사람보다 더 정확하게 알고 있음을 잘 보여 주는 장면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마귀도 영계에서 활동하는 까닭에 하나님의 실존에 대해서는 아주 정확하게 인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라는 말은 '우리가 하는 일에 당신이 무슨 상관이냐?'라고 따지는 뜻이 아니라, 상대방에게 암도당한 상태에서 '왜 이 러십니까?'라고 그 좌절감과 공포심을 나타내는 관용적인 표현입니다.

이것은 그 뒤를 이어 나오는 "때가 이르기 전에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여기 오셨나이까"라고 떠나면서 하는 말과 연결해 볼 때 더욱 확실해집니다.

그처럼 인간사회로부터는 한갓 뇌지 만도 못한 존재로 취급받았던 "귀신들린 자"를 우리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권능을 아낌없이 발동해서 마귀의 손아귀로부터 건져내 주셨던 것입니다.

실로 사람은 결코 다른 사람을 전대하고 멸시하기 일쑤입니다.

같은 반의 경우나 같은 회사의 동료 사이에서도 자신에게 도움이 전혀 되지 않거나 오히려 방해가 된다 싶으면 단단히 '왕따'를 시킵니다.

소위 '인간의 존엄성'을 말하게 되었다는 현대사회 역시 현실적으로는 옛날과 조금도 달라 없이 여전히 천한 사람이나 무능력한 사람을 소외시킬 뿐 아니라, 심지어 '인간 쓰레기'라는 표현까지 거칠게 사용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예수님의 눈에는 그처럼 '가치 없는 사람'이란 전혀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한 사람의 목숨을 재물 정도가 아니라 천하보다 더 귀하게' 여겨 주시기 때문입니다.

말로만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그런 마음을 당신의 '전능'을 동원하여 실천해 주십니다.

'사람이 데지보다 얼마나 더 귀하나?'라고 오늘날의 '가다라 주민'을 꾸짖으면서 그처럼 자기 혈육과 이웃으로부터

지극히 천히 여김을 받고 완전히 소외와 멸시를 당하고 있는 '잃어버린 한 아브라함의 자손'을 결코 버려두지 않고 당신 흘로 찾아와 주시는 것입니다.

아무리 형편없고 사람으로 칠 가치조차 없어 보이는 자라 할지라도 우리 예

수님께서는 그 한 사람의 생명조차 결코 마귀에게 빼앗기지 않으시고 반드시 건져내 주시는 것입니다.

왜 그랬습니까?

그들의 관심은 오로지 '돼지 떼'에만 집중되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들 중에 귀신들렸다가 나온 두 사람에게 죽음을 해 주었다는 혹은 예수님이 감사의 인사를 한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그 비참하기 징이 없던, 정말 '사람 같지 않은 사람'의 꼴로 살던 인생이 예수님의 기적적인 능력으로 한순간에 정신이 온전한 사람으로 돌아왔는데 그 동네사람들 중 어느 누구도 여기에 대해서는 전혀 안중에 없었습니다.

그들은 오로지 예수님께서 그 동네에 계속 계시면 자기네의 다른 뇌지 폐나 재산에 더 큰 피해를 입게 될 것만 염려했습니다.

그처럼 인간사회로부터는 한갓 뇌지 만도 못한 존재로 취급받았던 "귀신들린 자"를 우리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권능을 아낌없이 발동해서 마귀의 손아귀로부터 건져내 주셨던 것입니다.

실로 사람은 결코 다른 사람을 전대하고 멸시하기 일쑤입니다.

같은 반의 경우나 같은 회사의 동료 사이에서도 자신에게 도움이 전혀 되지 않거나 오히려 방해가 된다 싶으면 단단히 '왕따'를 시킵니다.

소위 '인간의 존엄성'을 말하게 되었다는 현대사회 역시 현실적으로는 옛날과 조금도 달라 없이 여전히 천한 사람이나 무능력한 사람을 소외시킬 뿐 아니라, 심지어 '인간 쓰레기'라는 표현까지 거칠게 사용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예수님의 눈에는 그처럼 '가치 없는 사람'이란 전혀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한 사람의 목숨을 재물 정도가 아니라 천하보다 더 귀하게' 여겨 주시기 때문입니다.

말로만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그런 마음을 당신의 '전능'을 동원하여 실천해 주십니다.

'사람이 데지보다 얼마나 더 귀하나?'라고 오늘날의 '가다라 주민'을 꾸짖으면서 그처럼 자기 혈육과 이웃으로부터

지극히 천히 여김을 받고 완전히 소외와 멸시를 당하고 있는 '잃어버린 한 아브라함의 자손'을 결코 버려두지 않고 당신 흘로 찾아와 주시는 것입니다.

아무리 형편없고 사람으로 칠 가치조차 없어 보이는 자라 할지라도 우리 예

우리를 세상에서 가장 귀중한 존재로 인정해 주시면서 그 우리의 생명을 마귀의 권리로부터 능히 건져내 주시는 우리 예수님의 권능을 더욱 의지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2. 예수님의 권능은 인생 문제 해결이 가장 시급해 보이는 사람에게 먼저 영혼 구원부터 베풀어 줍니다.

마태복음 9장 1절 이하 8절에 "예수께서 배에 오르사 건너가 본 동네에 이르시니 2층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오거늘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안심하라 네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30여년 서기관들이 속으로 이르되 이 사람이 신성을 모독하도다 40여년에서 그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마음에 악한 생각을 하느냐 5네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 어느 것이 쉽겠느냐 6 그러나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리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일어나 네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7그가 일어나 집으로 돌아가거니 8무리가 보고 두려워하며 이런 권능을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고 기록했습니다.

같은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누가복음 5장에 보면 이 사건의 전모가 좀 더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 중풍병자를 그 친구들이 데리고 예수께서 머물고 계시던 집에까지 찾아왔지만 위낙 많은 인파가 빽빽하게 밀집해 있어서 도저히 들어갈 길이 없었습니다.

궁리 끝에 그들은 지붕으로 올라갔는데, 당시의 집은 지붕이 평평했고 또 집 바깥벽에 지붕으로 올라갈 수 있는 계단이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지붕을 덮는 재료들이 그렇게 단단하게 고정된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 중 일부를 뜯어내는 것도 그리 어렵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풀럼버스의 달걀'처럼 그런 아이디어를 제일 처음에 생각해 낸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으며, 그렇게 해서라도 예수님을 꼭 만나야겠다고 생각했다는 점에 그 중풍병자와 그의 친구들의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갑자기 천장에서 중풍병자 한 명이 실린 침상이 내려 왔을 때, 예수께서는 "그들의 믿음을 보셨던 것임"

우체국 예금에서 우리 모두를 위한 미래의 꿈을 함께 하겠습니다.

똑똑한 금융 우체국으로 시작하자!

더 스마트해진
우체국 예금



우체국 예금에서 우리 모두를 위한
미래의 꿈을 함께 하겠습니다.

다.

그런 상황에서 그 중풍병자나 그의 친구들로부터는 한마디의 말도 없었지만, 그들이 요청하는 바가 무엇인지는 그 무언(無言) 중에도 누구에게나 명백했습니 다.

하지만 바로 그때 예수께서는 전혀 뜻밖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작은 자야 안심하라 네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라고 선포하셨던 것입니다.

그 자리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놀랐겠지만, 그 누구보다도 율법에 정통하고 있다고 자타 공인하던 “서기관들”이 그러했습니다.

그들은 오직 하나님만이 죄를 사하실 수 있으므로 예수님의 그런 선언은 “신성을 모독하는” 죄에 적용으로 해당된다고 “속으로”만 생각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그 서기관들의 “생각을 아시고” “너희가 어찌하여 마음에 악한 생각을 하느냐” 즉 ‘왜 솔직하게 드러내 놓고 말하지 않고 속으로만 나를 정죄하느냐?’라고 일침을 놓으셨습니다.

그러면서 이어서 그들에게 “네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 가라 하는 말 중에 어느 것이 쉽겠느냐”라고 질문하셨습니다.

정말 ‘어느 것이 쉬운가?’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은 간단치 않습니다.

서기관의 입장에서 본다면 당장 실제로 ‘기적’을 일으켜야만 하는 병 고침의 선언보다는 눈에 보이는 결과가 필요 없이 그저 ‘립 서비스’만 하면 되는 죄 사함의 선언이 더 쉽다고 볼 수 있습니다.

반면에 중풍병자로서는 자기한테 그저 ‘일어나 걸어가라’고 치유를 선언해 주는 말이 훨씬 듣기 쉬울 것입니다.

하지만 사실에 있어서는 ‘병을 고치는 것’이나 ‘죄를 사해 주는 것’이나 둘 다 사람으로서는 어려운 일이고 오직 하나님께만 쉬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중풍병자에

게 ‘죄 사함’의 선언을 먼저 해 주신 이유는 곧 이어서 밝히시는 대로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능이 있는 줄”을 그들에게 알려 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특히 여기서 예수께서 스스로를 가리켜 ‘인자’(the Son of man)라고 칭하신 것은 중대한 의미가 있습니다.

이 명칭은 다나엘에서 ‘심판의 권세 있는 자’로 묘사되고 있는 메시아를 가리키는 단어이기 때문입니다.

즉 예수님이 장차 심판주로 오실 분이신 까닭에 그 심판에서 벗어날 수 있는 ‘죄 사함의 권능’ 역시 행사하실 수 있다는 뜻인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당신에게 바로 그러한 권능이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면서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일어나 네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고 하셨습니다.

그 중풍병자가 즉시 “일어나 집으로 돌아가는” 것을 보고 “무리가 두려워하며 이런 권능을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리”고 하였습니다.

즉 사람으로서는 아무도 할 수 없는 ‘처유의 권능’을 베푸심으로써 예수님에게는 ‘죄 사함의 권능’도 있음이 확실히 입증된 것입니다.

서기관들은 ‘죄 사함은 하나님만 할 수 있다.’라는 사실은 바로 알고 있었지만, 예수님이 바로 그 죄 사함의 권능이 있으신 ‘성자 하나님’이신 줄은 알지도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들 앞에서 당신께서 발휘하시는 권능은 ‘사람의 죄를 용서하여 구원을 베풀어 주시는 것’에서부터 시작되어 마지막 날에 가서는 ‘죄 사함을 받지 못한 자를 심판하여 영벌지옥에 던지시는 것’에까지 이르게 될 것임을 바로 이 사건을 통해 명백히 공포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인간의 ‘중풍병’을 고쳐 주시려고 세상에 오신 분이 절대로 아니십니다.

니다.

누가복음은 5장 15절과 16절에, 사람들은 그런 신유 기적의 소문을 듣고 “자기 병도 고침을 받고자 하여 모여” 들었을 때 예수님은 “물러가사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니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화육강세하신 목적이 우리의 육신적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것이 었다면 어떻게 그처럼 당신에게 병 고침을 받으려고 찾아오는 사람들을 피하여 외진 곳으로 ‘물러가실’ 수 있었겠습니까?

사람들은 자기 건강이나 돈 문제를 가장 시급하다고만 생각하고 있지만, 우리 예수님은 그런 사람들에게 사실상 훨씬 더 급하고 중요한 ‘죄 사함과 구원’부터 베풀어 주시는 구세주이신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날 도와주셨으면 하고 바라는 것들이 어떤 것들입니까?

“예수님, 내 인생 문제는 제가 잘 압니다.”

예수님은 그저 저의 이 병만 고쳐 주시면 나머지는 제가 다 알아서 할 수 있습니다.” – 이런 자세로 예수님을 찾는 사람은 없습니다.

“예수님, 무슨 ‘죄 용서’ 따위의 복잡한 말씀은 생략하시고 그저 제가 지금 시작한 사업만 왕창 대박 터지게 해 주시면 제 인생은 아무 문제가 없을 텐데요.”

- 이런 소원만 성취되기를 바라면서 예수님 앞에 나아오고 있지는 않습니까?

예수님을 잘못 보아도 아주 잘못 보았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그런 잡다한 인생 문제를 해결해 주려고 오신 메시아가 결코 아니십니다.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일어나 걸어가라’는 신유의 은혜보다 먼저 ‘네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는 구원을 베풀어 주시기 위해 찾아오신 성자 하나님입니다.

그처럼 일단 ‘영혼이 잘 되는 자’에게 또

‘중풍병자를 치유하는 능력’은 세상의 유능한 의사도 할 수 있는 일이지만, ‘죄인을 용서하여 영생을 누리게 해 주시는 권능은 오직 한 분, 예수님만 베풀어 주실 수 있는 일인 것입니다.